

(제주인, 그리고 자연해설가가 안내하는 올레길) ‘올레’ 그 길 위에 서다.

고 평 열

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병리실험실 연구원
(사)자원생물연구센터 대표

● 올레길은 제주 풍광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길



● 올레와 질레

제주의 올레는 바람 많은 환경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적응의 산물이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질레와 한질레(골목길과 큰길)에서 자기 집 마당까지 이어지는 거의 개인적인 공간을 제주인들은 올레라고 말한다. 제주 민가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은 항상 올레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거친 바람이 직선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올레는 대부분 ‘ㄱ’자로 휘거나 ‘S’자로 굽이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레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질레와는 달리, 담

높이도 한 들레는 더 높게 쌓아서 최소한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높게 만들었다. 그래야 도로변에 있는 집일지라도 질레를 오가는 사람들이 무심히 집안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올레에 봉선화를 심거나 원추리꽃 등을 심어서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기도 한다. 방문객이 올레를 마주하고 서면, 그렇게 때론 그 집 주인의 성품이 읽히기도 하는 곳이 올레다.

요즘 상품화된 ‘올레길’은 본시 제주인이 느낌으로라면 그냥 질레(길)를 걷는 것이다. 본연의 올레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졌지만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그림 1. 과거에는 흙길이었던 올레가 요샌 시멘트 올레이다.(인향동)

읽으며 '제주인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올레를 걷는다는데 생각이 미친다. 사람들이 지친 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올레길에는 어떤 매력이 있기에 걷고 또 걷는 걸까.

나처럼 제주인의 마음으로, 자연해설가가 갖는 관심의 눈으로 걷는 올레길과, 다른 이들이 걷는 올레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득 올레길을 걷고 싶어졌다.

가자.

올레의 길을 열다.

모처럼 쉬러 집에 내려온 딸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뜬금없이 길 위에 섰다.

북풍한설만이 살을 에는 건 아니다. 한여름의 태양은 바다를 치고 올라 들관 위로 부서지다가는 얼굴 위에서 작렬하며 살을 연다.

시흥-광치기올레로 알려진 1코스는 말미오름(두산봉) 입구가 출발지이다. 제주에 있는 360여 개의 오름 중 첫 방문객을 맞는 곳, 나지막하고 넓적한 분화구 속은 농사짓는 밭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소가 방목되고 있다.

말미오름과 그 속에 빠리 튼 작은 새끼오름을 오르고 내리며 고불고불한 흙길을 걷고, 길을 막은 소뿔들 사이를 지나며 길 위에서 한낮의 시간을 보낸다. 흐르는 땀방울과 습기, 작열하는 무더위와 살을 에는 태양, 끈적끈적한 소금기 머금은 바람, 흙길을 걷다가 복병처럼 나타나는 아스팔트 길 위에서 서는 더위의 진수를 맞본다.

얼마나 더울지, 얼마나 뜨거울지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고 길을 나섰지만, 15 km 가 되는 첫 올레길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아스팔트 길 위의 더위는 옥수수를 찌듯, 나를 삶은 거 같다.

● 오름 두 개가 겹쳐진 말미오름

멀리 보이는 말미오름(이명;두산봉)은 넘데

데하다. 선뜻 카메라의 한 화면에 한 번에 담겨주지 않는다. 넘데데한 가장자리와는 다르게 가운데는 사춘기로 접어드는 소녀의 젓가슴처럼 가운데가 봉긋 솟아오른 새끼오름(알오름)을 품고 있는 모습이 여느 오름과는 다르다.

1963년 아이슬랜드의 남쪽 바닷가 한 곳에서 바닷물이 부글거리며 끓고 용암이 분출해서 화산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섬이 수면 가까이 성장하게 되자 용암 분출이 멈추고, 바닷물에 뒤섞인 검은 화산재와 물방울, 그리고 하얀 수증기가 거대한 분수와 같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이렇게 수성화산분출로 화산을 만드는 현상이 사람들에게 처음 인식하게 되었는데 몇 달간 지속된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 바로 셋시(Surtsey) 화산이었다(제주도지질여행). 이렇게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유리질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소규모 화산체를 응회구, 또는 응회환이라 한다.

1000°C가 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땅위로 솟구치는 도중에 물을 만나서 마그마나 용암은 급격히 식고 물은 끓게 되는데, 이런 냉각과 가열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 큰 폭발을 일으키며 형성된 분화구는, 폭발 당시의 힘의 크기만큼 넓고 크다.

올레길의 시작점인 말미오름과 1코스 끝 자락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은 모두, 셋시화산



그림 2. 수성화산분출로 형성된 말미오름은 응회환



그림 3. 마귀광대버섯과 새끼오름



그림 4. 말미오름 정상 의능선길

처럼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몇 안 되는 오름이다. 말미오름은 수성화산체로 만들어진 다음에 시일이 흐른 후, 물이 없는 환경에서 다시 화산활동이 일어나 작은 분석구를 또 만들었다.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분출방법을 가진 두 번의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모양새다.

● 말미오름 분화구 속으로 올레길은 이어지고

분석구이던 응회구이던 제주의 오름은 오름을 구성하는 입자가 작고 훼손이 쉽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걸을수록 발걸음이 닿는 곳들은 패이고 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되어 작은 골짜기를 이뤄간다.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되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레꾼들을 위해 애쓴 흔적이 올레길 걷는 곳곳에서 보인다. 미끄럽지 말라고, 오름이 조금이라도 덜 훼손되라고, 또한 길을 잘 못 들어 잃지 말라고 배려한 흔적들이다.

분화구 속을 걷는 길은 바람 한 점 들어움 없이 고요하다. 휘젓는 발걸음에 옷깃이 흔들릴 뿐, 햇살은 뜨겁고 길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한다. 때론 목장 길을 걷고 때론 나지막한 구릉을 넘으며, 때론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사람의 삶도 이렇지니, 올레길을 걸으며 인생의 굴곡을 읽는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다가올 미래를 올레길 위에서 한 획으로 잇는다.

어쩌면 사람들은 걸으며 느끼는 이런 감정 때문에 올레건기에 열광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가질 수 없었던 생각의 여유, 빨리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느리게 걷는 걸음 속에서 어쩌면 살아온 시간들과 살아갈 시간들을 재정리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용히 걷노라면 생각을 많이 하며 길을 걷게 된다. 문득, 쉬어가라 함일까. 소떼가 길을 막아 있다. 순한 녀석들이라 ‘휘이~’ 한마디에 육중한 몸을 일으켜 비켜줄 건 알



그림 5. 소떼가 막아선 오름 정상의 올레길

지만, 무더위에 번거롭게 하고 싶은 맘도 없다. 그냥 소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 소를 일으키지 않고 비켜 걷는다.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고 여기에 사는 소와 말과 노루, 그리고 산새들이 주인이다. 어찌다 하루 다녀가는 처지에 휘이~소리치며 소더러 비끼라고 허세를 떨 자격도 권리도 없음이다.

● 종달리 마을을 지나며

말미오름을 벗어나 종달리 마을 안길을 걸어 지난다. 달달달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경운기가 마을 안에 흐르는 한여름의 정적을 깬다. 경운기 짐칸에 탄 아주머니의 등에 한동안 시선을 고정시킨다.

처음 우리 집에 경운기가 들어오던 기억이 머리를 스친다.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에 이동수단으로서의 경운기는, 도시의 성장에 비교되는 시골마을의 변화처럼 더디다. 40여 년 전 아이 적 기억에 남아 있던 예나 지금이나 경운기소리, 경운기의 속도는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배어난다.

종달향을 끼고 해안도로를 걷다보면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대부분 제주 인근 연해에서 많이 잡히는 한치오징



그림 7. 창오징어 말림

어(*Loligo (Photololigo) chinensis* Gray)로 알고 있으나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이다. 한치오징어는 어획량이 적어서 횡감으로 팔려나가기도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가격이 매우 비싸게 형성된다.

이렇게 건조시키는 오징어는 살오징어과의 창오징어(*Loligo (Photololigo) edulis* Hoyle)로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린 것을 흔히 준치라고 부른다. 오징어처럼 바삭 말리지 않고 반 건조시켜서 말랑말랑하고 맛이 부드럽다.

소비되는 물량이 많아서 주로 수입되지만 제주의 해안에서 바닷바람에 말리고,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바닷가를 걸으며 먹는 맛은 특별한 감미로움이 있다. 다만 해수욕장 근처에서 말릴 경우 가끔 모래바람이 휘몰아쳐 오징어에 잔모래가 많이 붙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럴 땐 입안에서 잔모래가 씹혀 오징어를 먹을 수 없게 되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오분작구이와 조개죽으로 먹는 바닷가의 점심

점심은 일반 식당이 아닌 해녀의 집에서 조개죽을 먹기로 했다.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어서 무채와 배추김치를 빼고는



그림 6. 경운기소리는 농촌마을이 내는 소리

모두 해산물로 만든 반찬이 주어진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해조류무침, 생미역채, 총깅이(무늬발게)를 튀긴 계튀김이 나오는 게 이 집의 별미다. 양식이 되지 않아서 자연산으로만 구워지는 오븐작구이는 딸아이를 위한 특별 주문식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바다에 의지해 살아왔다. 과호에호에 용암이 대지를 덮고 있어 온통 암반인 지역이라 토양은 매우 여북하고, 그나마 조성되어 있는 얼마 안 되는 밭들은 대부분 해안에서 유래한 모래밭이다. 당근이나 무처럼 땅속으로 뿌리내리는 작물이 주요 농작물이



그림 8. 점심은 오븐작구이와 계튀김, 해조류무침

고 더러는 감자와 마늘을 재배하기도 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수확량이 턱없이 빈약하다. 요즘 화학비료가 흔해지면서 그나마 경작이 가능한 썸이니, 그렇게 살아온 이 지역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움의 상징처럼 묘사될 정도로, 그렇게 삶에 길들여져 왔다.

●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은 삶의 애환

‘동이사름 앓아난 딘 풀도 안 난다’(동쪽 사람들 앓았던 자리는 풀 한 포기 없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억척스럽다고, 어렸을 적 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 하셨다. 그 때는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더 생활력이 강한 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척박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내는 것이었다.

걷다 보면 그 지역의 땅이 보이고, 그 곳에 사는 식물들이 보인다. 다년생 식물들은 키가 작고, 대부분 겨울에는 죽는 일년생 식물들이 주변에 있을 뿐이다. 모진 해풍이 너그러지 않은 삶터를 제공한 것은 굳이 사람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멀리 눈을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면 풍경



그림 9. 과거 군 통신수단이었던 오소포연대



그림 10. 성산항엔 멸치액젓이 대규모 숙성 중

이 아름답다. 날씨가 화창한 날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나그네라면 어찌면 이 지역사람들이 부러울 지도 모른다. 과거의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 왔을 지, 해안가 겨울의 삶을 며칠만 겪어보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깃든 아픔도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군사시설이었던 오소포연대가 길가에 서 있고, 성산항을 지나노라니 멸치액젓을 숙성시키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과거 집집마다 항아리에 담가 먹던 멸치젓 담그기가 전통방식에서 진화해 대형화, 현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성산항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접어들며 과거와 같되 같지 않을, 남아있는 작은 길들을 걷는다.

● 해녀와 그들의 삶

물질하는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 해녀들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따 내고 있다. 해녀들은 이제 노령화되어 있어 젊은이가 없다. 성산항을 지나 일출봉이 눈앞에 있는 수마포에서는 해녀공연장에서는 할머니 해녀들이 분단장을 하고 하루에 한 두 번씩 관광객을 위한 물질하기 공연을 하고 있다.

생활에서 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건 진화일까 변화일까?

물에서 나온 해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여서 가까이 가 보았다. 주로 보라성계를 많이 채취하여 손질하고 있다. 우리 나이 또래의 사오십대 해녀들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어머니 해녀들은 딸에게 해녀 일을 전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만큼 고된 노동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해녀군들이 사라지면 제주 해녀의 모습은 아마도 해녀박물관에 가서 사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어릴 적 동네에서 보던 해녀작업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에는 미안함이 있다. 그들은 고된 삶이고 생활인데, 난 볼일 있어 지나는 나그네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한가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에 바쁜 일부 사람들에게는 올레꾼은 어찌면 성가신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그 마저 미안한 마음이 일어 슬그머니 작업장을 떠난다.

●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정상에 원형의 큰 구덩이 모양이 있는 성산일출봉은 수성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응회환의 산릉의 일부가 잔류된 것이라고 노지질학자는 풀이한다.



그림 11. 보라성계(수마포)



그림 12. 각자의 태왁과 망시리에서 해산물을 꺼내 작업 중이다



그림 13. 성산일출봉과 광치기해안



그림 14. 누룩빌레

일출봉이 형성된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바닷물이 화산재층을 깎아 가파른 절벽 모양의 침식절단면을 형성하였고 다양한 구조들이 드러나 있다. 일출봉은 응회환의 다양한 구조들을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화산체로 그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누룩빌레

일출봉을 지나면 흙도 아니고 바위도 아닌 누런 황토색을 띤 평지가 이어진다.

해녀의집 근처에서 담소를 나누시는 마을 어르신께 물어 보았다.

“이 지역 이름을 뭐하고 험니까?”

“광치기, 혹은 관치기랜도 허곡, 누룩빌레랜도 허주” (광치기, 혹은 관치기라고도 하고 누룩빌레라고도 하지)

“무사 누룩빌레 마썸?” (왜 누룩빌레죠?)

“옛날에 시체가 하도 하영 떠올란 관을 즐비하게 놔 났던 관치기, 또 넓어 부난 광치기가 되어실 거라, 누런 색깔이 누룩담지 않허냐, 게난 누룩빌레가 되었주” (옛날에 시체가 많이 떠올라 와서 관을 즐비하게 놓았었다고 관치기, 또는 넓다고 광치기가 되었을 거다. 누런 색깔이 누룩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룩빌레가 되었지). 그러고 보니 어릴 때 많이 보던 누룩 색깔과도 비슷해 보인다. 빌레는 대부분 암반지대이지만 누룩빌

레의 절단면을 찾아 살펴보니 암반이 아닌 굵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

흙이 아니면서 이렇게 평평한 지형을 제주에서는 ‘빌레’라 부른다.

누룩빌레는 해안가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이 퇴적물은 성산일대의 암석들이 풍화 침식된 쇄설물이 유수에 의해 운반되어져 와서 퇴적되었다. 여기에는 퇴적되던 당시에 살았던 유공충이며 조개 등이 함께 퇴적되었으며 그 생성연대를 측정한 결과 4700년으로 측정 되었으니 성산일출봉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성된 것만은 틀림없다.

퇴적물이 퇴적된 후에 받게 되는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를 속성작용이라 하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퇴적 장소에는 계속하여 퇴적물이 쌓이므로 아래의 퇴적물은 두꺼운 지층으로 덮여서 압력을 받게 되고 그 속에 들어있던 물을 짜내어 입자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 주므로 입자들은 서로 껴안게 된다.

또한, 그 입자들 사이를 통과하는 물에 들어 있는 규산분, 석회분, 철분 등이 공극에 침전되어 입자들을 더운 단단히 굳히는데, 신양리층을 굳게 한 석회분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조개나 유공충의 껍질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곳의 퇴적물은 석화(lithification)되어 딱딱하게 굳어졌을 것이다.



그림 15. 누룩빌레의 단면과 얽혀진 현무암

자연에 있어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이름에 알맞은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낸 건 인간이 아닌 자연의 힘이다. 오늘 걸으며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모습도 흘러온 시간만큼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 런 지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변화의 과정에 인간에 의해 너무 인위적인 변형들이 지나치게 가해지지 않기를 소망할 뿐이다.

끝날 거 같지 않은 올레길의 끝이 저만치서 보이기 시작한다. 과거야 어떻든, 누룩빌레를 품고 성산일출봉을 품은 광치기해안을 따라 걷는 일은, 그동안 걸어온 길의 피로를



그림 16. 누룩빌레를 걷는 광치기해변의 순비기나무 길

한순간에 앗아갈 만큼 아름답고 평화롭다. 길 양옆에 양탄자처럼 깔린 순비기나무가 진한 약초향기를 뿜으며 머릿속을 맑게 한다.

올레를 걷는 길목에 버섯을 만나고, 풀 숲 사이 살짝 숨어있는 야생화를 찾아내어, 사진을 찍으며 쉬엄쉬엄 걷다보니, 5시간 정도면 끝나라라 여겼던 길이 7시간 이상 소모되었다. 이제 1코스는 끝났다. 발바닥이 뼈근해진다.

누룩빌레 위에서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말들도 더위에 지쳤는지 드러누워 있다. 강한 햇살에 풍경도 숨을 죽인 듯 한여름의 정적이 흐른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듯 하루를 걸어내는 시간도 태양 아래서 고요하게 흘렀다.

다음 코스엔 또 어떤 이야기들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될까?